

# 역대급 장맛비...광주·전남 '극한 호우' 대비해야

### 6월 25일 이후 강수량 지리산 성삼재 915mm·광주 732mm 지난해 장마철 전체 강수량 2배...국지성 호우 겹쳐 더 큰 비 장마전선 오르락 내리락...7월 '장마 괴담' 현실화 되나

아직 장마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광주·전남에는 이미 지난해 장마기간 누적 강수량의 2배를 훌쩍 넘는 많은 비가 내리고 있다. 특히 7월 들어 16일 현재까지 광주에는 12일, 전남에는 13일간 비가 내렸고 앞으로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어 기상청이 지난 5월 '터무니없다'고 일축한 '7월, 사흘 빼고 비가 내린다'는 해외 IT 업체의 '장마 괴담' 예보가 현실화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록적인 폭우가 집중적으로 내리는 현상도 찾아 수도권 지역에 내린 '극한 호우'가 광주·전남지역에서도 나타나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올해 장마가 시작된 지난 달 25일부터 이달 16일 오후 2시까지 구례(성삼재)에 915.5mm, 담양(봉산) 741.5mm, 광주(조선대) 732.5mm의 누적 강수량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장마기간(6월 23일~7월 23일) 내내 광주·전남지역 누적 강수량은 광양(백운산) 382.5mm, 보성(별교) 284mm, 구례(성삼재) 269.5mm, 광주(서구) 233.5mm로 집계됐는데 올해 이미 2배가 넘는 양의 비가 내린 것이다.

평년(1991~2020년) 장마기간 누적 강수량인 광주 362mm, 여수 372mm, 목포 297.2mm 등과 비교해도 올해는 유독 강수량이 많다.

강우 일수도 벌써 지난해에 비해 2배 가까이 나온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16일까지 광주에는 6일간 비가 왔지만, 올해는 같은 기간 2배인 12일간 비가 내렸다.

더구나 올해는 장마전선이 한반도 남쪽으로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다음 주까지 비를 내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7월 '장마 괴담'이 현실화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상청은 올해 이례적으로 많은 장맛비 원인에 대해 "한반도 북쪽에 자리한 저기압 뒤에서 부는 차

고 건조한 공기와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부는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강하게 충돌하면서 비구름대를 잘 발달시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6월 초·중순 전세계적으로 발달한 엘니뇨의 영향으로 많은 비를 포함한 비구름이 6월 하순부터 본격적으로 장마전선을 형성했다. 지난달 말 남부지방에 집중호우로 시간당 최대 강수량 부문에서 광주 54.1mm, 광양시 49.6mm로 6월 극값을 갱

신했다. 기상청은 장맛비 이외에도 저기압에 따른 국지성 호우까지 겹치면서 올해 장마철 유독 많은 비가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7월 초 뜨거운 폭염에 습한 공기가 급상승했고 이에 상층부에 발달된 저기압이 충돌해 비구름대가 높은 고도에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문제는 아직 장마가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 중국 남부지방까지 이어지는 장마전선의 끝에 태풍이 올라오면서 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16~18일 중국 남부지역에 상륙하는 태풍이 해수면의 많은 습기를 가지고 올라와 우리나라 장마전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기상청은 올해부터 짧은 시간에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극한 호우'(1시간에 50mm와 3시간에 90mm)를 동시에 충족할 경우 개념을 만들어 긴급 재난문자 발송 기준으로 삼고 있다.

남부지방에 극한 호우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 남은 장마기간 호우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극한 호우 발생 우려가 나오고 있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16일 오후 3시 기준 여수(돌산)에는 시간당 5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 등 남은 장마기간 언제든지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면서 "올해 유독 남쪽으로 좁고 동서로 긴 장마전선이 중부와 남부 지방에 오래 머물고 있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댐이 최근 지속된 폭우로 광주호의 수위가 오를 데 따라 16일 수문 4기를 모두 개방해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직업-암 발생 인과관계 기준 마련... ‘직업성 암’ 대책 나서야”

### 조선대 직업병안심센터 ‘직업병 없는 세상’ 토론회

매년 암으로 인한 사망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직업성 암'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작업장 또는 일하다 발암물질에 노출돼 발생하는 암인 '직업성 암'에 대한 인과 관계 입증 책임이 작업자에게 있다는 점에서 직업성 암 발생 원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선대 직업병안심센터는 전남노동권익센터와 공동으로 지난 14일 오후 조선대병원 직업병안심센터 2층에서 '직업병 없는 세상을 만들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철갑 조선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노동자 직업성 암 현황 및 대책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직업성 암에 대한 산재요양 신청자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지난 2020년 전체 25만명의 암 발생률자중 직업성 폐암 환자는 1441~2973명으로 추정되고, 직업성 백혈병은 15~538명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직업성 암 여부 판단에만 2~3년씩 걸리고 산재요양 신청 후 사망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고 암 발생 인과관계는 작업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것이 이 교수의 설명이다.

이 교수는 "의학계의 역학연구 부족으로 인과관계 규명이 어려울 때 이를 인과관계가 없다고 해석해선 안된다"면서 "직업성 암 발생 원인에 대한 연구가 이뤄져 직업과 암 발생관계의 인과관계에 대한 기준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직업성 암 관련 노동계 대책 제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맡은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 센터장은

"우리나라는 노동자들이 어떤 업종과 작업, 용도에서 어떤 발암물질에 노출되고 있는지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발암물질이나 직업성 암에 대한 공식적 통계가 전무후무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발암물질이 함유된 물품을 사용하는 사례가 잦고 해외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는 물품이 한국에서는 사용되는 경우도 많다"고 주장했다.

문 센터장은 "따라서 국내에서도 위험 물질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해 관리하고 기업들이 은폐하고 있는 발암물질에 대해서도 공개해야 한다"며 "개인과 유급처리된 발암물질 사용시 우선 대체물질을 검토할 의무를 사업주에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종료 광주 보건 노동자 현장 복귀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이 종료돼 광주·전남 대다수의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이 의료현장으로 복귀했다.

다만 광주·전남 일부 병원에서는 노사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일부 파업이 이어지고 있다.

16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광주·전남에서는 순천 성가롤로 병원과 광주시립 제1·2요양병원은 아직 파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 13일 시작된 총파업에는 광주·전남 14개의료기관 15개 노조 2500여명이 참여했다. 이 중 3개(조선대병원·광주기독병원·호남권역재활병원)지부가 교섭을 마친 상태다.

순천 성가롤로병원 노조는 승진 연한 단축 등 인사 제도 개편을 요구하고 있고 광주시립 제1·2요양병원은 고용승계와 직영 운영 등을 내세우며 파업 중이다. 모두 로비에서 파업을 진행 중이며 노조측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파업을 무기한으로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조선대병원은 노조 측에서 ▲임금 1.7% 인상 ▲감정노동 휴가 전 직원 미사용 수당 지급 ▲비정규직 점진적 정규직 전환 조건을 제시했고 병원 측이 이를 받아들이며 파업이 종료됐고, 광주기독병원 역시 임금 협상을 마쳤다. 전남대병원은 사측에서 국가 인상안인 1.7%를 제시하는 반면 노조 측에서 10.73%를 제안해 아직까지 임금 협상을 남겨둔 상황이지만 파업은 종료됐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 목포 호남동 5층 다세대 주택 붕괴 우려에 철거 결정

'무너질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된 목포의 5층 다세대 주택(연면적 2278㎡)이 조만간 철거될 예정이다.

목포시는 "건물의 소유자와 세입자들과 함께 지난 15일 건물에 대한 대책회의를 열고 철거를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책회의에서 건물 소유자들은 철거에 찬성 입장을 보였으나 소유자가 다수(4명)인 만큼 철거 비용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목포시가 자진철거 하지 않을 시 강제 철거 명령을 내릴 계획을 통보하자 소유자들은 빠른 시일내에 합의를 해 철거를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구체적인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목포시 호남동에 있는 이 건물 세입자들은 지난 14일 오후 4시 10분께 소방에 건물이 무너질 것 같다는 신고를 했다.

소방이 출동한 당시 건물 1층의 주 기둥 2개는 건물의 하중을 견디지 못해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가 철근이 튀어 나온 상태였고 건물 외벽과 내부 복도에는 금이 가 있었다.

붕괴위험이 있다는 판단에 소방과 행정당국은 건물 내부에 있던 주민 18명과 인근 건축물 6개동에 거주하는 21명의 주민도 대피시켰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제안하면 거절하고!

발견하면 신고하고!

한 사람의 보험비로 전국민의 경제부담 줄이겠습니다

보험사기 ZERO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신고 포상금**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

경찰청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한국보험대리점협회